2022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포럼

1인가구 보편화시대
: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서비스 방안

일시 : 2022.11.11.(금) 15:00-16:50

장소 : 강북구가족센터 4층 다목적강당·ZOOM(대면·비대면 병행 운영)

대상 : 1인가구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실무자, 공무원, 지역주민 등

강북구가족센터 GANGBUKGU FAMILY CENTER
여성가족부 지원 서울시 강북구 위탁

순서

14:30~15:00	**참석자 접수**
15:00~15:10	**개회** : 한은주 센터장(강북구가족센터)
15:10~15:40	**주제발표**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과제 : 송혜림 교수(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15:40~16:00	**강북구 1인가구 실태 및 요구도 조사 결과** : 김민주 팀장(강북구가족센터)
16:00~16:05	**휴식**
16:05~16:35	**자유토론** ▪ 좌장 : 한은주 센터장(강북구가족센터) ○ 토론1. 강북구 1인가구 중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청년센터의 역할과 과제 : 권혜진 센터장(강북청년창업 마루) ○ 토론2.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성 모색 : 엄준 센터장(서초1인가구지원센터) ○ 토론3.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과 방향성 : 송미정 팀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정책팀)
16:35~16:45	**질의응답**
16:45~16:50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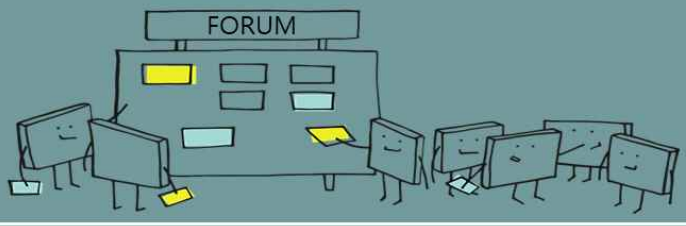
목차

주제발표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과제** …… 송혜림 교수(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7
-	**강북구 1인가구 실태 및 요구도 조사 결과** ……	25
자유토론	**강북구 1인가구 중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청년센터의 역할과 과제** …… 권혜진 센터장(강북청년창업 마루)	59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성 모색 …… 엄준 센터장(서초1인가구지원센터)	61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과 방향성 …… 송미정 팀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정책팀)	67
부록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강북구가족센터 주요사업** ……	95

1. 주제발표

2022 서울시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 포럼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서비스 방안**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과제



2022-11-11
송 혜 림(울산대학교)

목 차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들어가기 →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 과제와 전망

1인가구 증가
1인가구의 웰빙

1인가구 정책 관련 이슈
맞춤형 정책의 틀
세부사항

강북구 1인가구 웰빙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방향성, 과제

01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 1인가구 증가
2. 1인가구의 웰빙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 증가
모든 일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 경제적 배경
- 사회문화적 배경
- 기술적 배경
- 가치관

- 1인가구가 된 요인, 연령, 1인가구로 산 시간, 자발성 여부, 소득, 주거형태 등 요소에 따라 생활실태 매우 다양

- 전 연령대에서 증가

~~임시적~~
~~일시적~~
~~미완성~~
~~비자발적 과도기~~

1인가구의 보편화 시대

송혜림(2019). 1인가구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방안. 부산광역시 <2019> 제 9회 건강가정세미나 –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실천과제 발제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의 증가/보편화

한국 가족트렌드 중
가장 부각되는 특성

계속 상승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가족트렌드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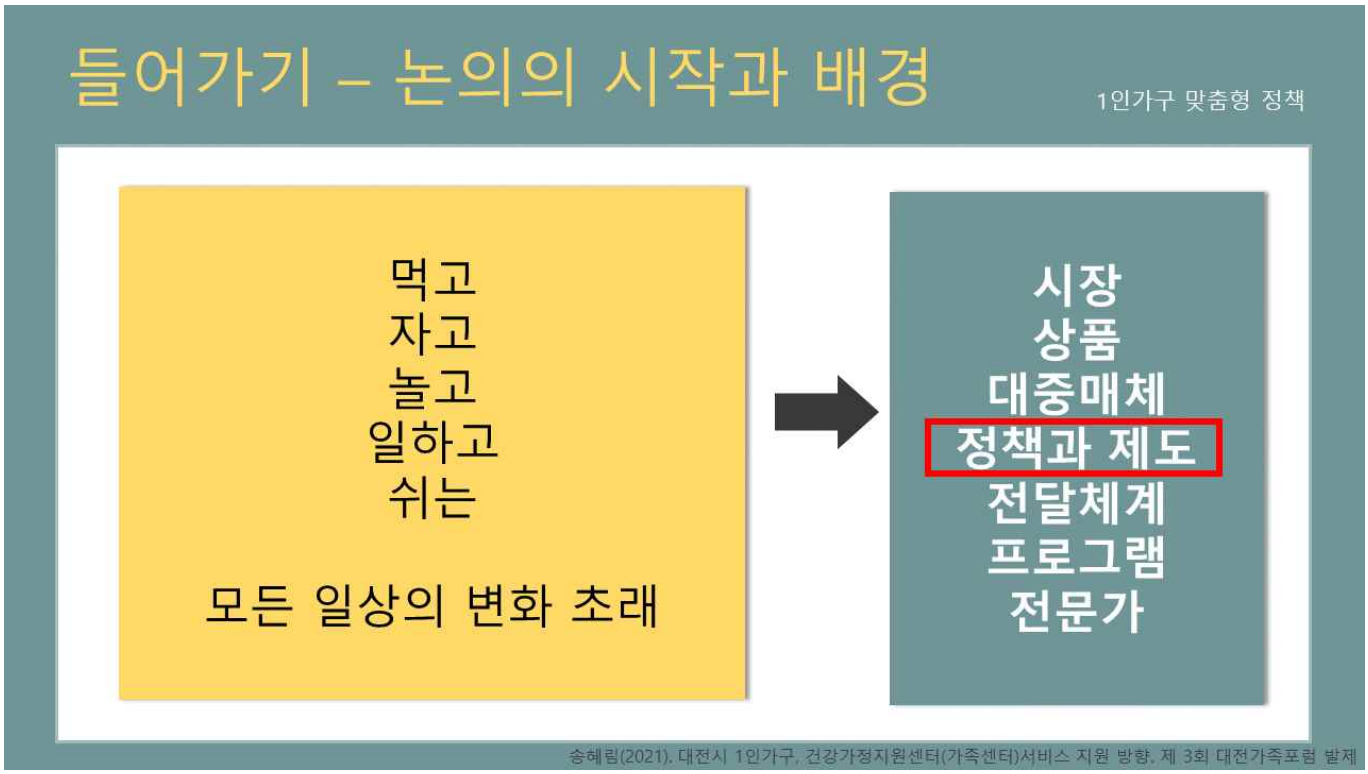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원리

사회구성원리의 전환 필요

기존에 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해 온 사회적 관계망, 안전망, 지지자원의 축소
→1인 가구의 고립, 관계의 단절
→ 사회문제

문제 해결과 예방, 삶의 질 향상

조영희(2017). 1인가구 시대,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2017년 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조강연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쉬는
모든 일상의 변화 초래
시장
상품
대중매체
정책과 제도
전달체계
프로그램
전문가
송혜림(2021). 대전시 1인가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서비스 지원 방향. 제 3회 대전가족포럼 발제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 웰빙
웰빙 지표
1인가구
웰빙
맞춤형
정책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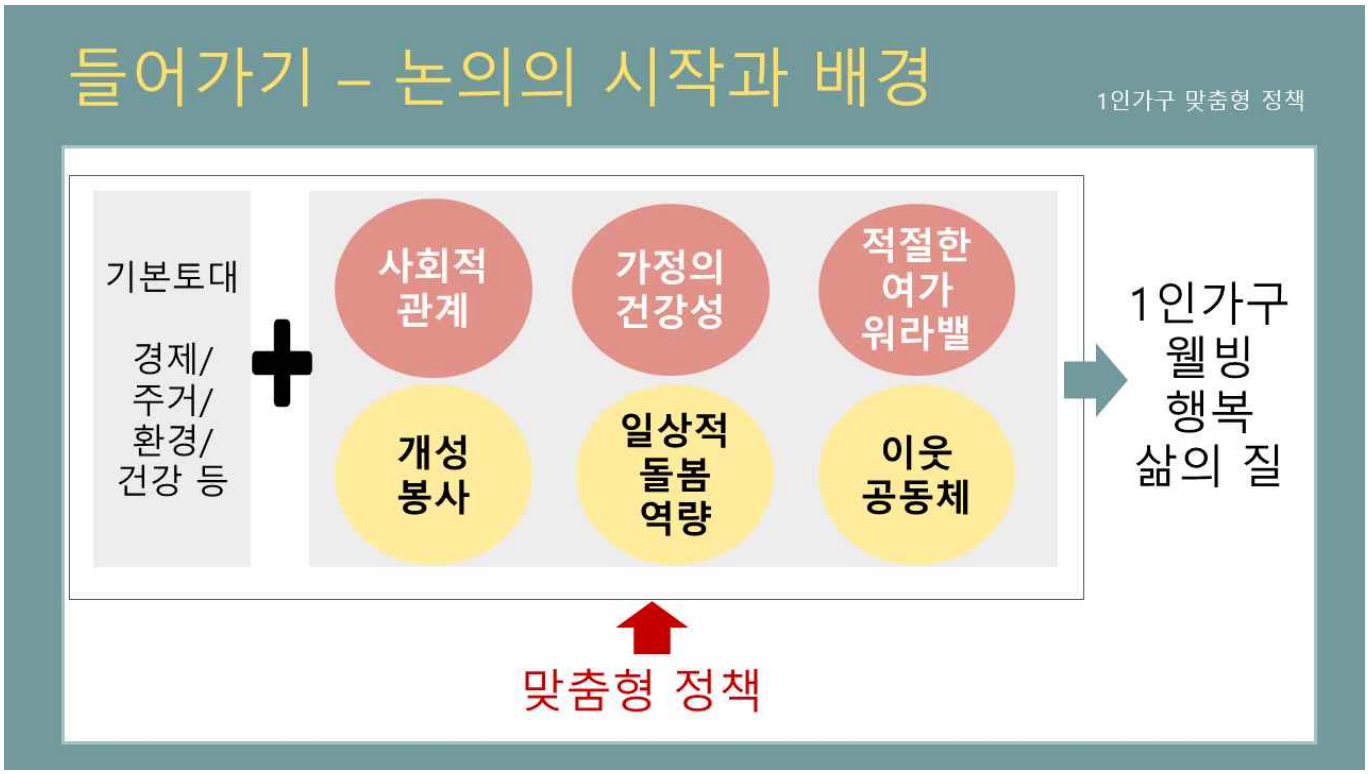
Oecd-librar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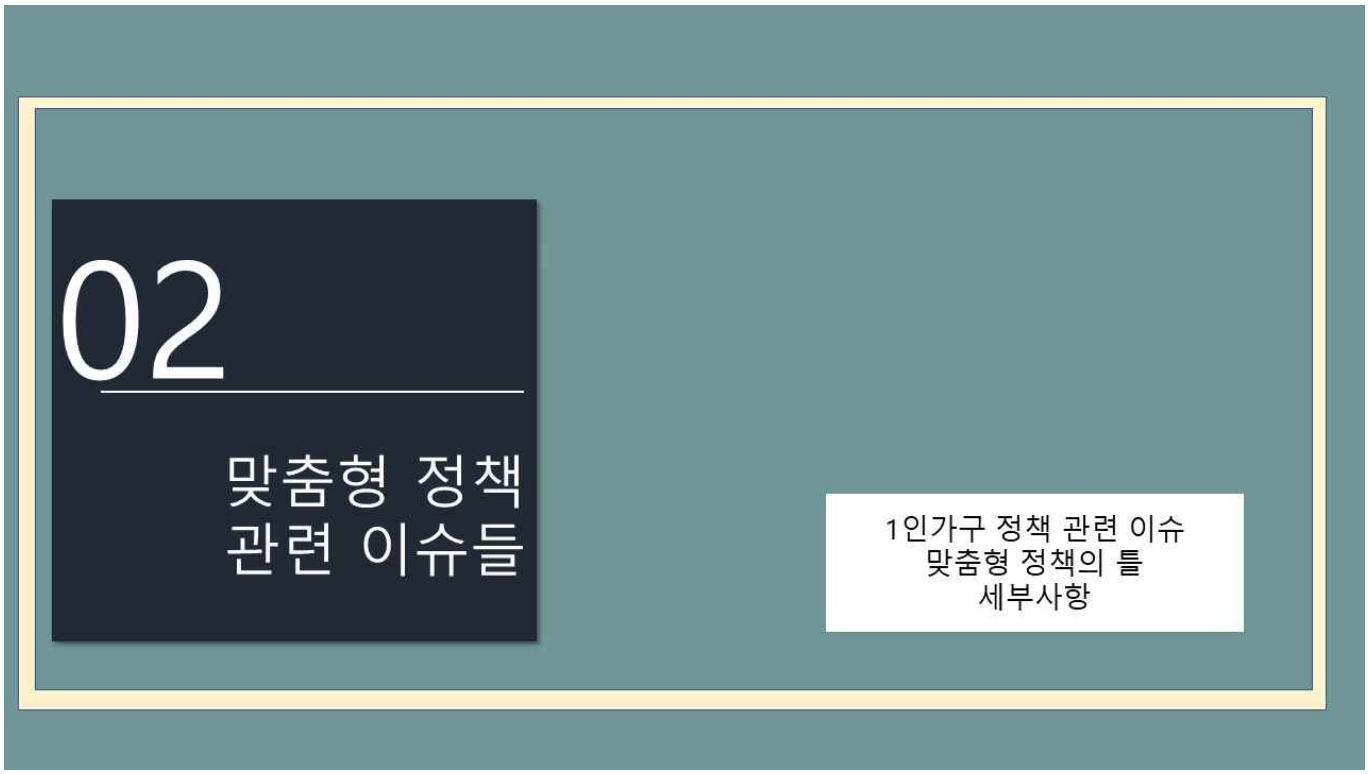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소득/자산
노동/직업의 질
주거
건강
지식/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일·생활균형
사회적 관계망
시민참여

→ 1인가구의 웰빙


들어가기 – 논의의 시작과 배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기본토대
경제/
주거/
환경/
건강 등
사회적 관계
가정의 건강성
적절한 여가 워라밸
개성 봉사
일상적 돌봄 역량
이웃 공동체
1인가구 웰빙 행복 삶의 질
맞춤형 정책


02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정책 관련 이슈
맞춤형 정책의 틀
세부사항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지원의 정책적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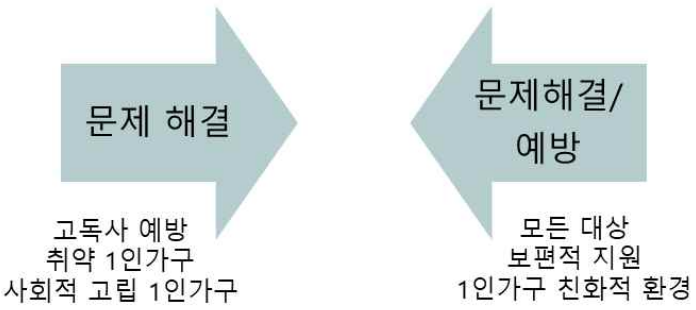
법제처 사이트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 지원의 정책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 지원의 정책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

정책 영역 담당 부서 전달체계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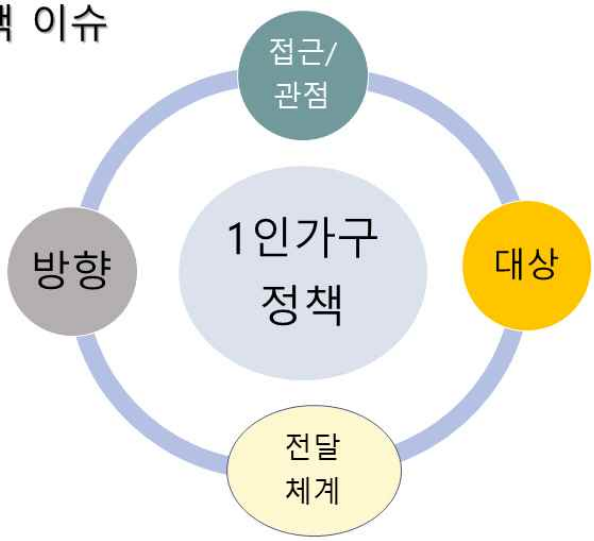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이슈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이슈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이슈

제안 : 가족정책으로 접근한 1인가구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가족정책 → 기본계획 → 사업

가족정책	기본계획	사업
1인가구 가족정책의 주요 타겟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1인가구 사업 활성화
맞춤형 보편적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관련 이슈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웰빙지표

소득/자산
노동/직업의 질
주거
건강
지식/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일·생활균형
사회적 관계망
시민참여

→ **1인가구의 웰빙**

현재, 중복과 누락, 사각지대 등
분석/진단 필요
정책의 균형성 검토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
(관 중심의 정책 설계/
기관(센터)중심의 사업 제공)

03

과제와 전망

강북구 1인가구 웰빙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방향성, 과제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앞으로 1인가구
계속 증가 예측

전연령대별로 증가

모두의 일상

사회정책의 주요 타겟

더 이상 취약자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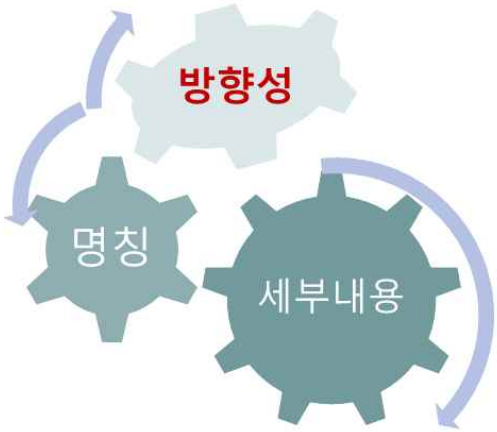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충족을 위한
지원 필요

맞춤형 정책
방향성
대상
세부과제
추진전략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강북구
1인가구조례 제정



기본계획
사업
전달체계
전담인력
기타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맞춤형 정책

개념과 범주
주요 타겟

선행연구

1인가구 다양성 반영
개인별 요구 < 유형화
자원의 합리적 사용 필요
1차 타겟 선정

송혜림 외(2018). 서울지역 1인가구 현황 분석에 따른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연구
강덕구(2022). 1인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인문사회21 13(4)
송혜림(2021). 대전시 1인가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서비스 지원 방향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정책/사업 설계

1인가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편견
- 과잉친절
- 일방적 수혜자, 도움이 필요한 집단

↓

지역사회 주체 : 수혜자 → 참여자, 평가자, 파트너
역량/잠재력 개발과 활용의 기회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부여

송혜림 (2020). 다양한 가족 이해. 2020 경상남도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1인가구
지원의
핵심요소 도출

정책의 지향성
사업의 강조점

성과평가의 기준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활용

네트워크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
혹은
기존 전달체계 활용

거점 기능 필요
정책/사업의 효율화
각 기관들의 강점 강화
지역 자체로서는 자원의 총량 증대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공적 전달체계
계층별 역할분담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단계별 전략
(제안)

2022-2023
실태조사
포럼
홍보
TFTeam
조례제정
요구도조사
시범사업
중장기계획
1차 기본계획

2024-2025
특성화 사업
맞춤형 사업
지속적 활용가능한
1인가구 매뉴얼/
모델 개발과 적용
중간평가
컨설팅
2차 기본계획
실태조사 보완
홍보
HUB 구축

2026+
1인가구정책/사업 추진의
시스템 정착
위상 정립
3차 기본계획
성과평가/정책영향평가
다른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
기관연계 강화

과제와 전망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새로운 지평

새로운
논의의
출발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미래

관건은
건강한
공동체성

2. 강북구 1인가구 실태 및 요구도 조사 결과 및 분석

1인가구의 증대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강북구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영역별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2021)’에서 사용된 조사지를 참고・일부 수정하여 ‘강북구 1인가구 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강북구에 거주 중인 1인가구 총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삶에 대한 인식, 생활실태(주거, 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식생활, 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 1인가구 지원사업 요구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구글폼 설문지 활용)・오프라인 설문조사(관내 공공・유관기관 설문지 배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 발굴의 한계, 중복 제출 등으로 총 68부를 회수하여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거주 1인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분석 결과는 향후 강북구가족센터가 운영하는 강북구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의 방향성 및 내용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북구 1인가구 현황

Ⅰ. 강북구 1인가구 현황

1. 강북구 인구 현황 및 추이

강북구 내 인구수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약 2만명 이상),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1인가구의 확대로 세대수는 2018년 대비 2022년 1,314세대가 증가하였다[1].

<표 1-1> 강북구 1인가구 수(성별)

(단위 : 가구)

구분	1인가구	남자	여자
2018	40,872	18,508	22,364
2019	42,791	19,517	23,274
2020	45,685	20,958	24,727
2021	**48,428**	**22,386**	**26,042**

출처 : 통계청(2021),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 시군구

<표 1-2> 강북구 1인가구 수(연령)

(단위 : 가구)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	324	6,451	6,305	5,984	7,069	7,061	7678
2019	295	7,137	6,397	5,875	7,259	7,534	8,294
2020	288	7,931	6,711	6,064	7,478	8,263	8,950
2021	250	**8,477**	**7,183**	**6,031**	**7,707**	**9,092**	9,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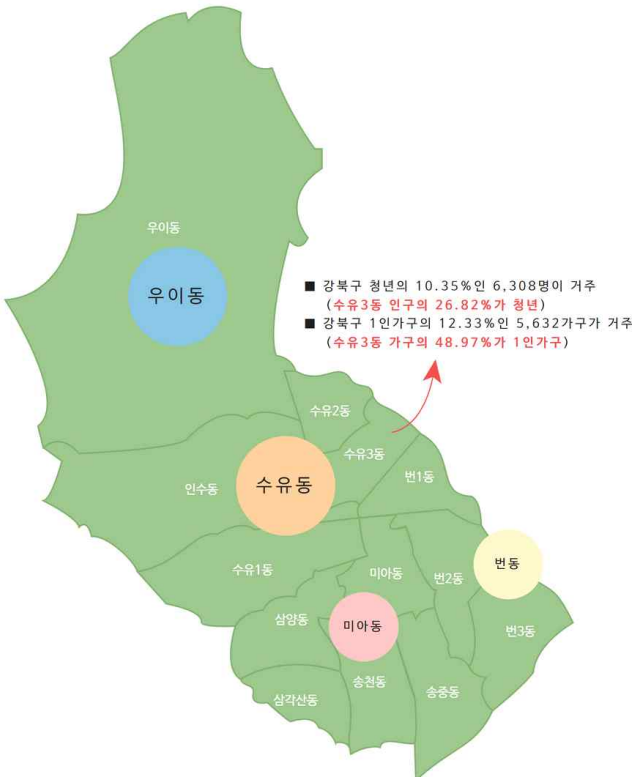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2021),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 시군구

2018~2021년도 강북구 1인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의 수가 꾸준히 많은 것(약 4,000명 내외)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바, 전연령에서 1인가구의 수는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60대 1인가구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

1)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 2022.10.11.

2. 강북구 내 권역별 1인가구 현황

<그림 1-1> 강북구 1인가구 수(연령)[2)]



<표 1-3> 강북구 동별 세대당 인구

(단위 : 가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2.1	**1.83**	2.09	1.92	2.68	**1.76**	2.05	2.23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	-	-
1.94	2.13	**1.73**	2.11	2.08	-	-	-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2022.07.),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인구현황

강북구 내 거주 중인 전체 청년 중 10.35%(6,308명), 강북구 내 전체 1인가구 중 12.33%(5,632가구)가 수유3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수유3동의 세대당 인구가 1.73가구로서 가장 낮게 나타나 강북구 내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 2022.10.11.

강북구 1인가구 요구도 조사 결과 및 분석

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2-1>과 같다. 첫째, 연령을 살펴보면 30대(26명, 38.2%)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5명, 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은 여성(41명, 60.2%)이 남성(27명, 39.8%)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직업은 회사원(28명, 41.2%), 무직(16명, 23.5%), 전문직(7명, 10.3%)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상태는 미혼(50명, 73.5%), 비혼(13명, 19.1%)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연령	20대	14(9)
	30대	**26(38.2)**
	40대	11(16.2)
	50대	12(17.6)
	60대	5(7.4)
성별	남성	27(39.8)
	여성	**41(60.2)**
직업	**회사원**	**28.4(41.2)**
	공공기관(공무원 포함)	2(2.9)
	프리랜서	6(8.8)
	전문직	7(10.3)
	자영업	3(4.4)
	예체능	1(1.5)
	공공근로	1(1.5)
	학생	3(4.4)
	무직	**16(23.5)**
	기타	1(1.5)
결혼상태	**미혼**	**50(73.5)**
	비혼	**13(19.1)**
	별거	3(4.4)
	사별	1(1.5)
	이혼	1(1.5)

또한 '혼자 생활하기 전 누구와 함께 생활하였는가' 에 대한 질문 결과(<표 1-2> 참조), 82.3%(56명)가 '가족(부모, 자녀, 형제)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2> 조사 대상자의 1인가구 생활 이전 가구 형태

(N=68, 단위: 명, %)

문항	항목	N(%)
Q. 현재 혼자 생활하기 이전에 누구와 함께 생활하였습니까?	**가족(부모, 자녀, 형제)과 함께**	**56(82.3)**
	배우자와 함께	4(5.9)
	친구(동료)와 함께	5(7.4)
	주거공동체 생활	-
	기타	3(4.4)

조사대상자가 1인가구로 생활을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한 결과(<표 2-3> 참조), '3년 이상~6년 미만' (14명, 20.6%), '1년 이상~3년 미만' (13명, 19.1%), '10년 이상~15년 미만' (13명, 19.1%), '20년 이상' (13명, 19.1%) 순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하게 표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왜 1인가구로 사는 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표 2-4> 참조), 39.7%(27명)은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라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편의(사생활 보장) 때문에' (10명, 14.7%) 1인가구를 선택하였다는 응답이 나타나, 가족 내 독립에 대한 욕구 의식 및 가치가 높아진다면 1인가구의 형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8명, 11.8%),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사, 분가 때문에' (8명, 11.8%)로 응답하여 중·노년기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음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8명, 11.8%) 1인가구를 선택한 경우는 혼자 살고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과의 관계가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2-3> 1인가구로서 생활한 기간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는 혼자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미만	7(10.3)
	1년 이상 ~ 3년 미만	13(19.1)
	3년 이상 ~ 6년 미만	**14(20.6)**
	6년 이상 ~ 10년 미만	7(10.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19.1)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5)
	20년 이상	13(19.1)

<표 2-4> 1인가구 선택 이유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현재 혼자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27(39.7)**
	시험, 자격증, 취업 준비를 위해	1(1.5)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4(5.8)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8(11.8)
	함께 살던 가족 구성원의 이사·분가 때문에	8(11.8)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8(11.8)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2(2.9)
	개인적인 편의(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	10(14.7)
	기타	-

Ⅱ. 1인가구로서 삶에 대한 인식

1. 1인가구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1인가구로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3-1> 참조), 29명(42.6%)이 '대체로 만족한다', 9명(13.2%)이 '매우 만족한다'고 하여 과반수 이상은 현재 1인가구로서 생활하는데 있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인가구로 생활하며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3-2> 참조), 과반수 이상(44명, 64.7%)이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을 꼽았으며, 그 뒤로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15명, 22.0%)을 꼽아 자유로운 일상생활 및 시간 활용이 1인가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임을 알 수 있다.

<표 3-1> 1인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8.8)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3(4.4)
	보통이다	**21(31.0)**
	대체로 만족한다	**29(42.6)**
	매우 만족한다	9(13.2)

<표 3-2> 혼자 생활하기에 좋은 점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44(64.7)**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15(22.0)
	직장업무나 학업 등에 몰입 가능	1(1.5)
	가족부양 부담이 없음	1(1.5)
	경제적 여유	1(1.5)
	가사 등 집안일이 적음	1(1.5)
	좋은 점이 없음	5(7.3)
	기타	-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별 만족도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각 영역별로 '보통이다' 이상으로 체크하여 조사대상자들 모두 1인가구로서의 생활영역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영역별로 '만족한다' 라고 한 경우를 비교하면,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26명, 38.2%), '나의 생활수준' (25명, 36.8%),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25명, 36.8%), '나의 사회적 친분관계(22명, 32.3%)' '나의 건강' (21명, 3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경제적 수준' 은 10명(14.7%)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1인가구로서 현재 자신의 욕구충족 및 이를 이루기 위한 시간적 여유 등에 있어 만족하고 있으나, '미래의 안정성' (20명, 29.4%), '나의 안전' (18명, 26.4%), '경제적 수준' (16명, 23.5%)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현재 1인가구로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가족관계' 에서 16명(23.5%)이 '만족하지 않는다' , 10명(14.7%)이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원가족과의 가족관계가 1인가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3-3> 1인가구로서 삶의 영역별 만족도 여부

(N=68, 단위: 명, %)

문항		척도	N(%)
Q. 귀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나의 생활 수준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7(10.3) 12(17.6) **22(32.4)** **25(36.8)** 2(2.9)
	(2) 나의 건강		10(14.7) 9(13.2) **25(36.8)** **21(30.9)** 3(4.4)
	(3)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5(7.3) 8(11.8) **25(36.8)** **26(38.2)** 4(5.9)
	(4) 가족관계		10(14.7) **16(23.5)** **16(23.5)** **19(28.0)** 7(10.3)
	(5) 나의 사회적 친분관계		6(8.8) 9(13.2) **23(34.0)** **22(32.3)** 8(11.7)
	(6) 나의 안전		6(8.8) **18(26.4)** 15(22.1) **21(30.9)** 8(11.8)
	(7) 미래 안정성		8(11.8) **20(29.4)** **21(30.9)** 15(22.0) 4(5.9)
	(8)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3(4.4) 10(14.7) **20(29.4)** **25(36.8)** 10(14.7)
	(9)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 전반		4(5.9) 13(19.1) **23(33.8)** **21(30.9)** 7(10.3)
	(10) 나의 경제적 수준		11(16.2) **16(23.5)** **31(45.6)** 10(14.7) -

마지막으로 현재 1인가구로 살고 있으나, 향후 어떤 형태의 가구 또는 거주형태를 원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3-4> 참조), 44.1%(30명)는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살겠다'고 하였으며, 25명(36.8%)은 '지금처럼 혼자 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향후 원하는 가구·거주 형태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가 앞으로 이루기 원하는 가구·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혼자 1인가구**	**25(36.8)**
	원래 살던 가족과 함께	3(4.4)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하여 함께	**30(44.1)**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6(8.8)
	잘 모르겠음	3(4.4)
	기타	1(1.5)

2. 1인가구로서 삶에 대한 어려움

1인가구로 살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표 3-5> 참조), '경제적 어려움'(24명, 35.3%),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0명, 29.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3-6> 참조), '외로움'(17명, 25.0%),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12명, 17.6%), '고독감'(9명, 13.2%)을 호소하였다.

1인가구의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혼자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3-7> 참조), '특별히 없다'(18명, 26.5%)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외여행 가기'(14명, 20.6%), '식사하기'(14명, 20.6%), '문화생활하기'(7명, 10.3%)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표 3-5>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	**24(35.3)**
	여가 및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의 어려움	8(11.8)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20(29.4)
	식사 해결	3(4.4)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6(8.8)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1(1.5)
	기타	4(5.9)
	힘든 점이 없음	2(2.9)

<표 3-6> 혼자 생활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혼자 생활하며 겪는 주된 심리적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외로움**	**17(25.0)**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	6(8.8)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	9(13.2)
	1인가구에 대한 주위 시선	3(4.4)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12(17.6)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걱정	6(8.8)
	음주, 인터넷 사용 등 조절이 안됨	2(3.0)
	힘든 점이 없음	9(13.3)
	기타	4(5.9)

<표 3-7> 혼자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혼자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해외여행 가기	14(20.6)
	국내여행 가기	3(4.4)
	문화생활 하기	7(10.3)
	술 마시기	5(7.3)
	쇼핑하기	-
	취미활동 하기	4(5.9)
	운동하기	-
	식사하기	14(20.6)
	불편한 행동 없음	**18(26.5)**
	기타	3(4.4)

그 외 ‘혼자 하는 활동(혼밥, 혼술, 혼영 등)이 불편한가’를 질문한 결과(<표 3-8> 참조), ‘1인용이 더 비싸서’(19명, 28.0%) 또는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11명, 16.1%)를 꼽아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여전히 혼밥, 혼술, 혼영 등을 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시각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혼자 하는 활동이 불편한 이유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혼자 하는 활동(혼밥, 혼술, 혼영 등)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인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10(14.7)
	1인용이 더 비싸서	**19(28.0)**
	익숙하지 않아서	3(4.4)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11(16.1)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서	1(1.5)
	정보나 이용방법(예약 등)을 몰라서	1(1.5)
	불편하지 않음	17(25.0)
	기타	6(8.8)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또는 불편함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3-9> 참조), ‘관공서 또는 은행 업무 보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우편물이나 택배물 수취하기’, ‘병·의원 방문하기’, ‘청소 및 세탁하기’ 역시 불편하지 않다고 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하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와 때때로 불편하다고 한 경우가 똑같이 나타나, 1인가구의 연령 또는 건강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사(반찬 등) 준비’, ‘전등 교체 등 집수리 관련’ 영역은 불편하다고 한 경우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 지원 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표 3-9>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낍니까?	(1) 식사(반찬 등) 준비	1 = 자주 불편함 2 = 때때로 불편함 3 = 불편함을 느낄 때 있음 4 = 별로 불편하지 않음 5 = 전혀 불편하지 않음	14(20.6)
			17(25.0)
			17(25.0)
			13(19.1)
			7(10.3)
	(2) 청소(정리) 및 세탁(빨래)		12(17.6)
			15(22.1)
			8(11.8)
			21(30.9)
			12(17.6)
	(3) 관공서 또는 금융 업무 보기		10(14.7)
			12(17.6)
			9(13.2)
			15(22.1)
			22(32.4)
	(4) 우편물이나 택배물 수취하기		7(10.3)
			8(11.8)
			13(19.1)
			22(32.3)
			18(26.5)
	(5) 전등 교체 등 집수리 관련		14(20.6)
			19(28.0)
			14(20.6)
			11(16.1)
			10(14.7)
	(6)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		7(10.3)
			18(26.5)
			14(20.6)
			11(16.1)
			18(26.5)
	(7) 병・의원 방문		5(7.3)
			11(16.2)
			12(17.6)
			21(30.9)
			19(28.0)

Ⅲ. 1인가구의 생활 실태

1. 주거 실태

현재 어떤 주거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4-1> 참조), '단독주택(일반/다가구)' (23명, 33.8%), '연립/다세대주택' (21명, 30.9%) 순으로 60% 이상이 다가구 형태의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4-2> 참조), '주거비용 부담이 적어서' (18명, 26.5%),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17명, 25.0%),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 (11명, 1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 선택 시 어려웠던 점을 조사한 결과(<표 4-3> 참조), 과반수 이상(36명, 52.9%)이 '주거지 비용' 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위치의 주택 매물을 찾는 것' (16명, 23.5%)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표 4-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유형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단독주택(일반/다가구)**	**23(33.8)**
	단독주택(영업겸용)	2(2.9)
	아파트	12(17.6)
	연립/다세대 주택	**21(30.9)**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
	오피스텔	8(11.8)
	고시원	1(1.5)
	기타	1(1.5)

<표 4-2> 주거지 선택 기준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께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주 경험이 있는 곳	4(5.8)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곳	**17(25.0)**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운 곳	5(7.4)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곳(보증금, 월세)	**18(26.5)**
	주택 상태가 좋은 곳(면적, 냉·난방 등)	6(8.8)
	주차장이 잘 갖춰진 곳	2(2.9)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	5(7.4)
	동네 환경이 쾌적한 곳(편의시설, 공원 등)	11(16.2)

<표 4-3> 주거지 선택에 있어 어려운 점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께서 주택을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 부족	16(23.5)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마련	**36(52.9)**
	주택 성능(단열, 환기 등) 판단 정보 부족	8(11.8)
	법적 문제(불법 여부, 근저당 등) 확인 정보 부족	5(7.4)
	부동산 계약(절차, 수수료 등) 정보 부족	3(4.4)

2. 안전 실태

현재 거주지 또는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실태 유무를 조사한 결과(<표 4-4> 참조), 조사대상자의 약 90%(61명)가 '있다' 고 응답한 것은 '집 주위 20m 반경 내에 외부 조명이 있다'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 주위 반경 20m 이내 CCTV가 있다' 는 약 65%(44명)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그 외 과반수 정도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이 있다' (35명, 51.5%)고 하였다.

그러나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50명, 73.5%) '경비원이 있다' (49명, 72.1%) 순으로 70% 이상이 '없다' 고 응답하였고,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 장치가 있다' (35명, 51.5%), '인터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 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35명, 51.5%) 순으로 과반수가 '없다' 고 응답하여 1인가구 거주지 또는 지역에 대한 안전성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표 4-4> 거주 중인 주택·동네 내 범죄 안전과 관련된 것들의 유무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귀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 장치가 있다.	1 = 있다 2 = 없다 3 = 잘 모르겠다	31(45.6) **35(51.5)** 2(2.9)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 등)이 있다.		**35(51.5)** 31(45.6) 2(2.9)
	(3) 인터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28(41.2) **35(51.5)** 5(7.3)

문항		척도	N(%)
Q. 귀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4) 출입 카드를 사용한다.	1 = 있다 2 = 없다 3 = 잘 모르겠다	16(23.5) **50(73.5)** 2(3.0)
	(5) 경비원이 있다.		16(23.5) **49(72.1)** 3(4.4)
	(6) 집 주위 반경 20m 내에 CCTV 등 감시 카메라가 있다.		**44(64.7)** 15(22.1) 9(13.2)
	(7) 집 주위 반경 20m 내에 외부 조명이 있다.		**61(89.7)** 4(5.9) 3(4.4)

조사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표 4-5> 참조),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두렵다'는 약 과반수 정도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매우) 그런 편이다'보다 좀 더 많았으나, 두려움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는 '(매우) 그런 편이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가 좀 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주거지 또는 지역의 안전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 정도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귀하는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일상생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할까 두렵다.	1 = 전혀 그렇지 않음 2 = 그렇지 않은 편임 3 = 보통 4 = 그런 편임 5 = 매우 그러함	11(16.2) **17(25.0)** 16(23.5) **17(25.0)** 7(10.3)
	(2)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18(26.5)** **17(25.0)** 11(16.2) 9(13.2) 13(19.1)
	(3)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12(17.6) **15(22.1)** 11(16.2) **17(25.0)** 13(19.1)

3.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실태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4-6> 참조), 과반수 이상이 '보통이다', '대체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2.1%(15명)은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 4-7> 참조), 과반수 이상이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 상태와 마찬가지로, 12명(17.6%)는 '별로 건강하지 않다', 7명(10.3%)은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하여, 약 30% 정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현재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6(8.8)
	별로 건강하지 않다.	15(22.1)
	보통이다.	**20(29.4)**
	대체로 건강하다.	**20(29.4)**
	매우 건강하다.	7(10.3)

<표 4-7> 현재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현재 귀하가 스스로 평가하는 정신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혀 건강하지 않다.	7(10.3)
	별로 건강하지 않다.	12(17.6)
	보통이다.	17(25.0)
	대체로 건강하다.	**25(36.8)**
	매우 건강하다.	7(10.3)

그리고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표 4-8> 참조), ‘많이 느끼는 편이다’(22명, 32.4%), ‘대단히 많이 느낀다’(7명, 10.3%)가 ‘조금 느끼는 편이다’(16명, 23.5%), ‘거의 느끼지 않는다’(2명, 2.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자살 충동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표 4-9> 참조), 76.5%(52명)은 ‘아니오’라고 하였으나, 23.5%(16명)은 ‘예’라고 응답하여, 실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또는 치료적 개입이 빠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대단히 많이 느낀다.	7(10.3)
	많이 느끼는 편이다.	**22(32.4)**
	보통이다.	**21(30.9)**
	조금 느끼는 편이다.	16(23.5)
	거의 느끼지 않는다.	2(2.9)

<표 4-9> 최근 1년 동안 느낀 자살 충동 여부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	16(23.5)
	아니오	**52(76.5)**

구체적으로 ‘지난 2주 동안 느낀 우울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표 4-10> 참조), 대다수는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매우 그렇다’보다 좀 더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었다’(29명, 42.6%),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21명, 30.9%),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18명, 26.5%) 순으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1인가구의 우울감 또는 우울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심리, 정서 치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10> 최근 2주 동안 느낀 우울 증상의 정도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까?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다.	1 = 전혀 그렇지 않음 2 = 그렇지 않은 편임 3 = 보통 4 = 그런 편임 5 = 매우 그러함	6(8.8) **22(32.4)** 19(28.0) 15(22.0) 6(8.8)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6(8.8) **22(32.3)** 17(25.0) 18(26.5) 5(7.4)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잤다.		1(1.5) 11(16.2) **24(35.3)** 18(26.5) 14(20.5)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었다.		3(4.4) 6(8.8) 22(32.4) **29(42.6)** 8(11.8)
	(5) 식욕이 줄었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었다.		6(8.8) 17(25.0) **18(26.5)** 17(25.0) 10(14.7)
	(6)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10(14.7) 14(20.6) 17(25.0) **21(30.9)** 6(8.8)
	(7) TV 시청, 웹서핑 등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21(30.9)** 18(26.5) 14(20.6) 9(13.2) 6(8.8)
	(8)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반대로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22(32.3)** 19(28.0) 10(14.7) 14(20.6) 3(4.4)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 충동이 있었다.		**34(50.0)** 12(17.6) 11(16.2) 7(10.3) 4(5.9)

4. 식생활 실태

1인가구가 평소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4-11> 참조), ‘반찬을 만들기 번거로워 대충 끼니를 해결한다’는 ‘그런 편이다’(19명, 28.0%), ‘매우 그렇다’(16명, 23.5%)가 과반수 이상을 넘었으며,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그런 편이다(19명, 28.0%)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17명, 25.0%)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른다’는 ‘그런 편이다’가 25.0%(17명)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15명, 22.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 4-12> 참조),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25명, 36.8%), ‘장을 보는 것이 번거로워서’(12명, 17.6%), ‘경제적 이유로’(7명, 10.3%)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식생활 불균형이나 영양 상태의 소홀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질문한 결과(<표 4-13> 참조),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다’가 47.1%(32명)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배달음식’(10명, 14.7%), ‘편의점 음식’(9명, 13.2%)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나타나, 위에서 나타난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가 1인가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평소 식생활 실태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평소 식생활에 관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르곤 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2 = 그렇지 않은 편임 3 = 보통 4 = 그런 편임 5 = 매우 그러함	10(14.7) 15(22.1) 11(16.1) **17(25.0)** 15(22.1)
	(2) 주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끼니를 거르곤 함		13(19.1) **17(25.0)** 9(13.3) 16(23.5) 13(19.1)
	(3)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함		10(14.7) 17(25.0) 14(20.6) **19(28.0)** 8(11.7)

문항		척도	N(%)
Q. 평소 식생활에 관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4) 반찬을 만들기 번거로워 대충 끼니를 해결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2 = 그렇지 않은 편임 3 = 보통 4 = 그런 편임 5 = 매우 그러함	4(5.9) 14(20.6) 11(16.2) **23(33.8)** 16(23.5)
	(5)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노력함		8(11.8) 12(17.6) **21(30.9)** 18(26.5) 9(13.2)

<표 4-12> 혼자 식사할 때 식사를 거르게 되는 이유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가 혼자 있을 때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식욕이 없거나 귀찮아서**	**25(36.8)**
	혼자 먹기 싫어서	6(8.8)
	장을 보는 것이 번거로워서	12(17.6)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5(7.3)
	경제적 이유로	7(10.3)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없어서	4(5.9)
	음식 조리 방법을 몰라서	1(1.5)
	습관적으로	1(1.5)
	다이어트(체중조절)를 위해서	2(2.9)
	거른 적 없음	4(5.9)
	기타	1(1.5)

<표 4-13> 혼자 식사할 때 해결 방법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께서는 혼자 식사할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직접 음식을 조리한다.**	**32(47.1)**
	가정간편식(HMR : 밀키트 등) 이용	7(10.3)
	빵, 샌드위치	5(7.3)
	편의점 음식(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등)	9(13.2)
	배달 음식	10(14.7)
	포장 후 집에서	-
	음식점 방문 식사	-
	직장, 학교 식당	3(4.4)
	식사를 거른다.	1(1.5)
	기타	1(1.5)

5. 여가생활 실태

개인 여가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표 4-14> 참조),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TV, 영상물 시청’(24명, 35.3%)이었으며, 두 번째로 ‘유튜브, 블로그, SNS, 인터넷 검색’(15명, 22.1%)을 꼽았다.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인 ‘취미, 자기계발 활동’(9명, 13.2%)이나 ‘운동(스포츠) 활동’(7명, 10.3%)보다는 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표 4-15> 참조), ‘여가활동 비용 부담’(22명, 32.3%)을 꼽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14명, 20.6%)로 나타나 이를 보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개인 여가시간에 귀하가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TV, 영상물 시청(IPTV, 유선방송 등)**	**24(35.3)**
	문화예술(연극, 영화, 전시회 등) 또는 스포츠 관람	2(2.9)
	운동(스포츠) 활동	7(10.3)
	관광(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
	게임(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게임기 등)	2(2.9)
	유튜브, 블로그, SNS, 인터넷 검색	15(22.1)
	취미, 자기계발 활동	9(13.2)
	휴식(수면, 사우나 등)	3(4.4)
	친목모임(친구·지인 만남)	4(5.9)
	사회 참여 활동(봉사·종교활동 등)	1(1.5)
	기타	1(1.5)

<표 4-15>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여가활동을 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9(13.2)
	장시간 근로 등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8(11.8)
	여가활동 비용의 부담	**22(32.3)**
	적당한 여가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2(3.0)
	적당한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6(8.8)
	여가활동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3(4.4)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14(20.6)
	어려운 점 없음	4(5.9)
	기타	-

6. 사회적 관계망 실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실태를 조사한 결과(<표 4-16> 참조),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해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는 '그런 편이다'(25명, 36.8%), '매우 그렇다'(20명, 29.4%)로 과반수 이상이 관계에 따른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내 가족은 나를 존중한다' 역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년배'또는 '다른 세대'와 어울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여, 1인가구가 인식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사회관계에 대해 느끼는 정도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다음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현재 귀하가 느끼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1) 내 가족은 나를 존중한다.	1 = 전혀 그렇지 않음	10(14.7)
		2 = 그렇지 않은 편임	8(11.7)
		3 = 보통	13(19.2)
		4 = 그런 편임	**21(30.9)**
		5 = 매우 그러함	16(23.5)

문항		척도	N(%)
Q. 다음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현재 귀하가 느끼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2)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	1 = 전혀 그렇지 않음 2 = 그렇지 않은 편임 3 = 보통 4 = 그런 편임 5 = 매우 그러함	6(8.8) 5(7.4) 12(17.6) **25(36.8)** 20(29.4)
	(3)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충분하다.		7(10.3) 11(16.2) **22(32.4)** 16(23.5) 12(17.6)
	(4) 나는 동년배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별문제 없다.		2(2.9) 8(11.8) 17(25.0) **25(36.8)** 16(23.5)
	(5) 나는 다른 세대와 어울리는 데 별문제 없다.		5(7.4) 7(10.3) 18(26.5) **26(38.2)** 12(17.6)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참여한 공공활동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4-17> 참조), 과반수 이상이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정치적 이슈 관련 활동에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지난 1년간 참여한 공공활동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다음의 사회관계에 대하여 현재 귀하가 느끼는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1) 지역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ex. 환경개선, 치안, 지역 분위기 활성화 등)	1 = 그렇다 2 = 아니다	19(28.0) **49(72.0)**
	(2) 사회적 취약 집단 관련 자원봉사 활동(ex. 장애인, 아동, 노인, 저소득층 등)		22(32.4) **46(67.6)**
	(3) 정치적 이슈 관련 활동(ex. 청원 서명, 집회・시위 참가 등)		18(26.5) **50(73.5)**

Ⅳ.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욕구

서울시 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5-1> 참조), '없다'가 75%(51명)으로 센터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서울시 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이용 경험 유무

(N=68, 단위 : 명, %)

문항		척도	N(%)
Q. 서울시 내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 있다 2 = 없다	17(25.0) **51(75.0)**

또한 1인가구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5-2> 참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16명, 23.5%),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등'(13명, 19.1%)로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1인가구 관련 정보 획득 경로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귀하는 1인가구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하십니까?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16(23.5)**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5(7.3)
	온·오프라인 신문기사	2(3.0)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13(19.1)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	7(10.3)
	자치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등	2(3.0)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가구 포털)	2(3.0)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4(5.8)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 서울시 관련 기관(50플러스 센터, 청년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6(8.8)
	주변 지인	6(8.8)
	기타	5(7.4)

또한 향후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표 5-3> 참조), 과반수가 '여가문화 활동 지원'(34명, 50.0%)을 꼽았으며, 그 뒤로 '주거, 경제, 신체 건강 관련 교육'(21명, 30.9%),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 지원 등)'(21명, 30.9%)을 꼽았다.

앞으로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표 5-4> 참조),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21명, 30.9%), '1인가구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17명, 25.0%), '1인가구 맞춤형 자원, 인프라 발굴'(15명, 22.0%) 순으로 나타나, 관내 1인가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전문 심리 상담(1:1, 집단 상담)	15(22.0)
	주거, 경제, 신체 건강 관련 교육	21(30.9)
	여가문화 활동 지원	**34(50.0)**
	사회적 관계망(동아리 활동 지원 등)	21(30.9)
	1인가구 생활 정보 제공	19(28.0)
	기타	-

<표 5-4>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에게 기대되는 역할

(N=68, 단위 : 명, %)

문항	항목	N(%)
Q. 2022년 신규 개소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가 귀하의 건강한 독립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21(30.9)**
	1인가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8(11.8)
	1인가구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17(25.0)
	1인가구 맞춤형 자원・인프라 발굴	15(22.0)
	센터 시설의 접근성 및 공간 확보	4(5.9)
	전문강사, 활동가 확보	-
	기타	3(4.4)

마지막으로 1인가구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있었다.

<표 5-5> 기타 자유 의견

내용
영역 1. 보다 적극적인 1인가구지원사업 운영 희망 ·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 소식에 반가웠음 · 1인가구를 위한 재밌고 유용한 프로그램 진행 희망함 · 센터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강북구 내 1인가구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음 ·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되길 바람 · 1인가구지원센터 인력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음
영역 2. 1인가구를 위한 일상생활 또는 여가문화사업 확대 · 취업 1인가구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희망함 ·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인가구로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음 · 취미 발굴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식재료가 필요함. 장보기, 요리 등이 어려워 요리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함 ·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 · 일상생활과 관련된 살림법 등의 프로그램이 좋음 · 주택(전·월세 등) 매물 관련 정보와 식재료 제공 ·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닌 1인가구를 위해 도시락·반찬 등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음 · 경제적인 도움(생활용품 구매, 식재료 등)
영역 3. 1인가구를 위한 정서적 치유사업 ·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바람
영역 4. 1인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확대 · 프로그램 사후에도 동네에서 함께 산책 또는 식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함 · 활동성이 낮은 1인가구에겐 정서적 부재가 크게 느껴짐. 마음이 맞는 가까운 동네 이웃들을 많이 만나고 싶음

(1인가구지원센터 관점에서 본)

결론 및 제언

Ⅰ. 결론

1.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본 조사대상자의 대다수는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1인가구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유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비추어 1인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불안정함과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으나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영역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와 원가족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인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경험하는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은 매우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거주하는 지역과 살아가는 주택 환경, 취업 상황이나 혼인 경험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이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강북구 내 1인가구의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민감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1인가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집에 있을 때 식사를 거르거나, 반찬을 만들기 귀찮아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에 있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다고 한 것은 경제적 이유도 있었으나,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이중적인 사고방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균형적인 식생활과 영양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집에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밑반찬 만들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계획·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변의 1인가구 간 반찬 나눔 등 식생활 지원과 함께 상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전등·수전 교체 등 집수리·관리 관련한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상황과 요구도에 적합한 맞춤형 재무설계 프로그램 또는 주택 관련 정보 등이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자신이 대체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간에 주로 TV나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SNS 등)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을 주로 한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 그리고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세대의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1인가구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에 가장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이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이 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는 1인가구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센터는 1인가구가 매우 편안하게 방문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며,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공공활동에 있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공활동의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한다면,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 역시 상쇄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앞으로 지향해가야 할 방향이라 여기며 이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Ⅱ. 제언

본 요구도 조사 결과는 대상자의 표집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의 작성된 결과를 모든 1인가구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또한 연령, 성별, 경제 수준, 직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논의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 영역 관점에서 바라본 결론임을 명시하며, 기타 1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주거지와 관련된 주택 문제 등은 본 센터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 여겨 결론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인가구에게 있어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1인가구 지원 정책・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여긴다.

마지막으로 본 요구도 조사는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앞서, 관내 1인가구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관내 1인가구의 욕구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1인가구가 건강한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3. 자유토론

강북구 1인가구 중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청년센터의 역할과 과제

권혜진(강북청년창업 마루 센터장)

'고립청년' :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외부적 고립 상태이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고독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내부적 고립 상태인 청년, 혹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은둔청년' : '자택에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한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청년. 단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가 그러한 상태의 1차 원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 출처: 사토 슈사쿠(佐藤隆也, 2018)

□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옛드' 열풍)약20년전 '옛드'(옛날 드라마)가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 환경변화로 인해 일방적인 콘텐츠 전파방식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기존의 콘텐츠 소비문화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 (공동체 문화에 대한 호기심)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의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드라마는 복수나 불륜 또는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들이고 주인공이 개인에 국한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전원일기는 여러 가정을 하나의 꾸러미로 생각하여 한 편에 여러 집이 등장하기도 하고 모두가 주인공이기도 하다.

- (고립 청년에 필요한 문화) 전원일기의 등장배경이 되는 양촌리는 소위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옆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아차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환경이다.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 (서울청년센터 강북오랑의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커리') 강북오랑

- 은 올해 4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기존 동아리에 대한 지원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동아리 자체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기획인 '커리'(커뮤니티리더)를 선발한다. 커리가 선발되면 해당 커리가 운영할 동아리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센터가 돕는다. 기존 관계망이 아닌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 (현재 관계망 형성지원사업의 부족한 점) 4개의 동아리 참여자 총 수는 34명이다. 이것으로 강북구에 관계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미비한 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콘텐츠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단', '영상제작', '손바느질 한복제작', '디지털 드로잉'인데 더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더 많은 수의 동아리를 운영해서 현대판 청년 전원일기 드라마를 써서 적어도 외부적 관계망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는 방지하고 싶다.

□ 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상담오랑 또는 SNS상담 운영

-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 부적응, 가정 붕괴, 가정 폭력, 왕따나 인터넷 게임중독 등 너무나도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히키코모리라고 불리우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가족과의 소통을 단절한테 방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한다.
- (프로그램 참여 저조) 이러한 은둔청년들은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한 것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 (은둔청년의 발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다. 은둔청년들은 본인한테 필요한 복지제도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러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IT를 활용하거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현재의 상담오랑 서비스) 강북오랑 센터에는 현재 '상담 오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 내에서 1:1 대면상담을 해 주는 것이 기본 형태이다.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 상담이나 카카오톡 문자상담도 하고 있으나 대면상담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 (상담자와 내담자의 거리 좁히기) 은둔형 외톨이는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새로운 공포증인 '폰포비아(phone phobia)'를 갖고 있다. 2023년에는 상담신청 자체는 AI챗봇으로 받아 최대한 상담자와의 접촉은 줄이되 점차 (문자 -> 화상상담 -> 센터 상담실이 아닌 본인의 생활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상담) 순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영역을 줄여가면서 은둔상태이더라도 본인에 맞춘 정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돕고 싶다.

□ 종합 의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은 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1인가구를 포함하는 만19세에서 만39세가 대상이다. 해당 포럼을 준비하면서 서울1인가구포털에 강북오랑사업 게시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채널에 서울1인가구포털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성 모색

엄 준(서초1인가구지원센터장)

토론에 앞서 “1인가구 보편화 시대 - 강북구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서비스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강북구가족센터 한은주 센터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와 같이 우리는 1인가구 보편화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1인가구가 인구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TV만 틀어봐도 “나 혼자 산다”, “나는 solo”, “식샤를 합시다” 등 1인가구의 삶 그리고 1인가구들이 원하는 연애, 1인가구들의 먹방을 즐겨보게 되는 요즘이다.

그렇다면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어떠한가?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만, 정책 서비스는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분산화 되어 있으며,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서울연구원의 발표 자료(2022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 1인가구 포럼)는 앞으로도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해 주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에 시사해주는 것이 많다. 여러 자치구에서 1인가구의 증가에 맞춰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적인 1인가구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변화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에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로서,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지원사업과 현황을 바탕으로,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한 서비스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의 최근 1년간 이용자는 70%가 여성, 30%가 남성으로 여성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연령대는 20~30대(청년층)가 43%, 40~50대(중장년층)가 31%, 60대 이상(노년층)이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에 거주해도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 1인가구 분들의 지원사업 이용률은 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의 욕구는 성별에 따라, 연령층에 따라, 형성과정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1인가구의 중요한 특징은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자와는 다르게, 어느

동일한 삶의 과업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2016.03. 제정)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지원 조례」(2018.12. 제정)에 의해 2019년 3월 5일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1인가구지원센터이다. 서초구 내 1인가구가 서울시 내 타 자치구에 비해 평균 이하의 가구 수 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구의원들의 1인가구 정책의 필요성을 우선시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다.

2019년도에 처음 센터를 개소했을 당시에는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 서초구가족센터)에서 서초1인가구지원센터도 함께 수탁 받아 팀장을 포함해 5명의 담당자를 임명하여 별도로 독립된 1개의 공간(반포1동주민센터 4층 / 25㎡)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건물 4층 2개 공간(반포1동주민센터 4층 / 사무실, 커뮤니티실 / 55㎡)으로 이전하여, 1인가구들이 참여하는 자조모임에게 커뮤니티실을 대관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양재동으로 이전하여 1개층 모두를 1인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수탁 법인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고유번호증과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최초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겸임 체제에서 독립된 센터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인가구 사업에 보다 전문화와 체계화를 갖추며 운영되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 실적관리시스템과는 다른 우리 센터만의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 간 누적 데이터를 종합 ·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독립된 1인가구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지내면서,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1인가구 지원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저와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첫째, 1인가구지원센터는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춰,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한 시기이거나, 경제적 체계가 갖춰진 시기 임에도 1인가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관계를 맺는 시간도 적고 여가활동도 주로 혼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혜진,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중년연구에서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친인척 및 이웃과의 접촉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지내면서 불균형 식사와 고립감 해소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김미숙 외,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연구, 지역보건교육학회지)

따라서 연령 및 세대에 따라 1인가구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1인가구의 웰빙을 위해서는 대상별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공통된 삶의 과업을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는 3종 복지관이 가지는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1인가구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둘째,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은 관내 1인가구사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해야하며, 충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1인가구 관련 사업은 지역마다, 복지기관마다,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말한 3종 복지관 외에 청년센터, 50플러스센터, 자치구 1인가구 담당 공무원 등도 각각의 1인가구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의체)에서도 1인가구 분과가 신설되어 운영되는 자치구도 많다.

광진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주거감독관에 의해 광진구 화양동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21년도 6월에 진행을 했었으며, 마포구 청년센터에서도 작년(2021년)에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였다.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서초구에는 없지만, 서대문구, 성동구 등을 포함해 서울 외곽 지역까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1인가구 분과가 신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하여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관련한 사업과 함께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인가구가 복지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1인가구 지원정책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정리하고, 여러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독립센터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조직화 능력과 자원 연계는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전문성이며 동시에 그 어떤 실무자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앞서 말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의 역할은, 분산되어있는 1인가구 정책을 총괄하고, 여러 자원을 함께 연계하여 교통정리를 해내는 허브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독립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자원을 연계해내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1인가구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마다 동일한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자치구마다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는 형성과정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욕구가 나타난다. 동일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참여자분들에게 유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각 자치구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자치구마다 특성화된 사업이 1인가구의 웰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공간 협소로 인해 찾아오는 1인가구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전문화 대신,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신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통한 공신력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플리마켓 운영이나,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이 강사로 다시 센터에 기여하는 등의 협력 네트워크 활동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 강동구1인가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내에 구성되어 있는 요리 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주방 운영이나 1인가구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쿠킹클래스를 어느 자치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개소한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건강 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며, 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의 욕구는 다를 것이고, 각 자치구 센터마다의 강점은 다르다. 물론 공통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자조모임 지원이나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서라도 예산적인 지원은 정말 중요하고 필

수적이다. 다만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1인가구 영상토크쇼를 10월달에 진행을 했다. 거기서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1인가구는 어딘가 거쳐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의 가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는 내용이었다. 1인가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 지금도 1인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 분야에서는 1인가구 시대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 상태이다. 1인가구의 욕구는 다양하고,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다보니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인가구가 어떤 이유로 복지 영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1인가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에게 둘러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 1인가구 웰빙을 위해 점검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정책과 방향성

송미정(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 생활실태 인구구성

혼자 사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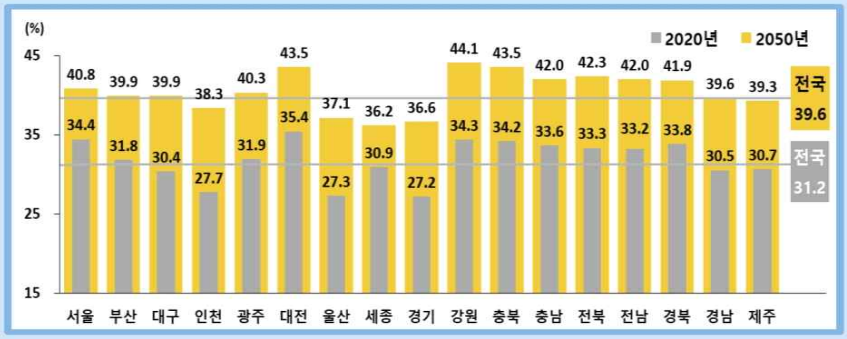
[전국] 2021년 기준, 107가구 중 37가구가 1인가구 (33.4%)
2050년 기준, 107가구 중 47가구가 1인가구 (39.6%)

1인가구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 향후 지속적 증가 전망

| 2021년 기준 전국 1인가구 |

* '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2050년 장래 1인가구 추계(전국 및 시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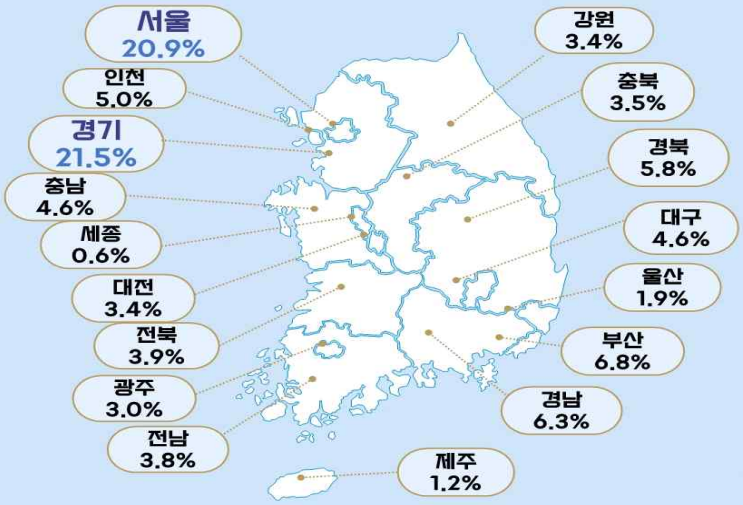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시도편]

1인가구 생활실태 인구구성

혼자 사는 '우리'

전국 1인가구 107가구 중 47가구는 서울(20.9%)과 경기도(21.5%)에 거주

ㅣ 1인가구 지역별 분포(2021) ㅣ



ㅣ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비율 (2021) ㅣ

* '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 인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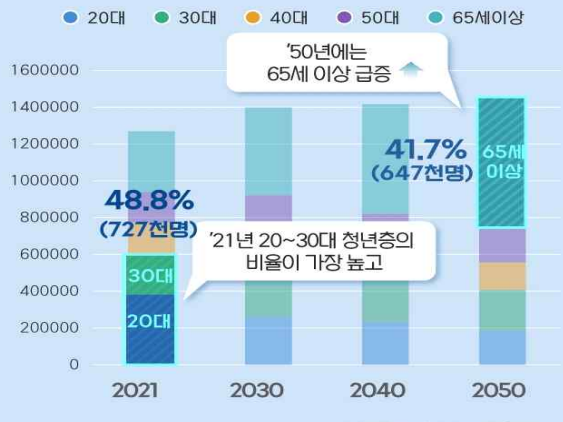
혼자 사는 '우리'

[서울]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36.8%)
2021년 청년 1인가구(48.8%), 2050년 노인 1인가구 (41.7%)

ㅣ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 비율 ㅣ

* '2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ㅣ 서울시 연령대별 가구 구성 변화 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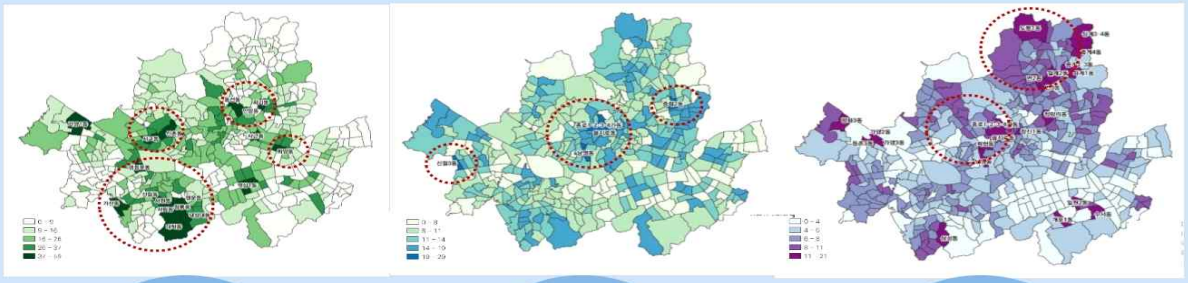
* '2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인가구 생활실태 인구구성

혼자 사는 '우리'

1인가구 밀집지역은 세대별로 형성원인, 밀집도, 생활실태가 달라

청년 1인가구 밀집지역	중장년 1인가구 밀집지역	노년1인가구 밀집지역



자발성/취향	빈곤	장기 거주
학교/직장근처 선호 거주기간 短 친구/동료중심관계망	주거비 대중교통 편의성 생활물가	지역 고령화 자녀 독립 배우자 사별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학교/직장 근처, 번화가 밀집도 가장 높아 거주기간 短 친구/동료 중심 관계망	저층주거지, 주거취약지역 밀집도 中 거주기간 中 사회적 고립 심해	오래된 주거 지역 밀집도 小 거주기간 長 가족/이웃 중심 관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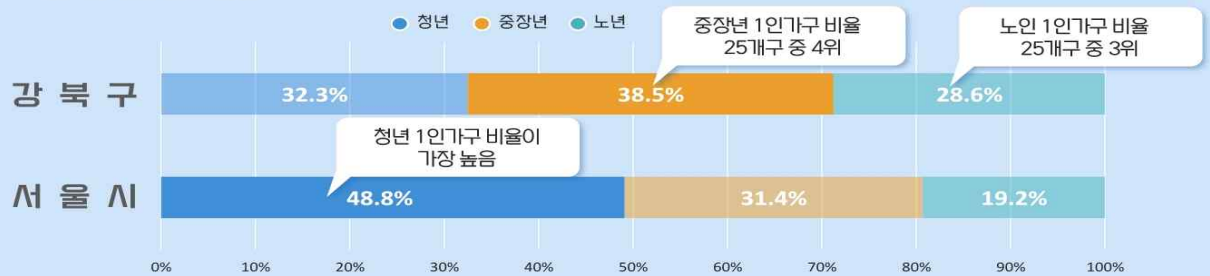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 인구구성

혼자 사는 '우리'

강북구 1인가구는 37.2%(중장년, 노년 1인가구 비중 ↑)

강북구 1인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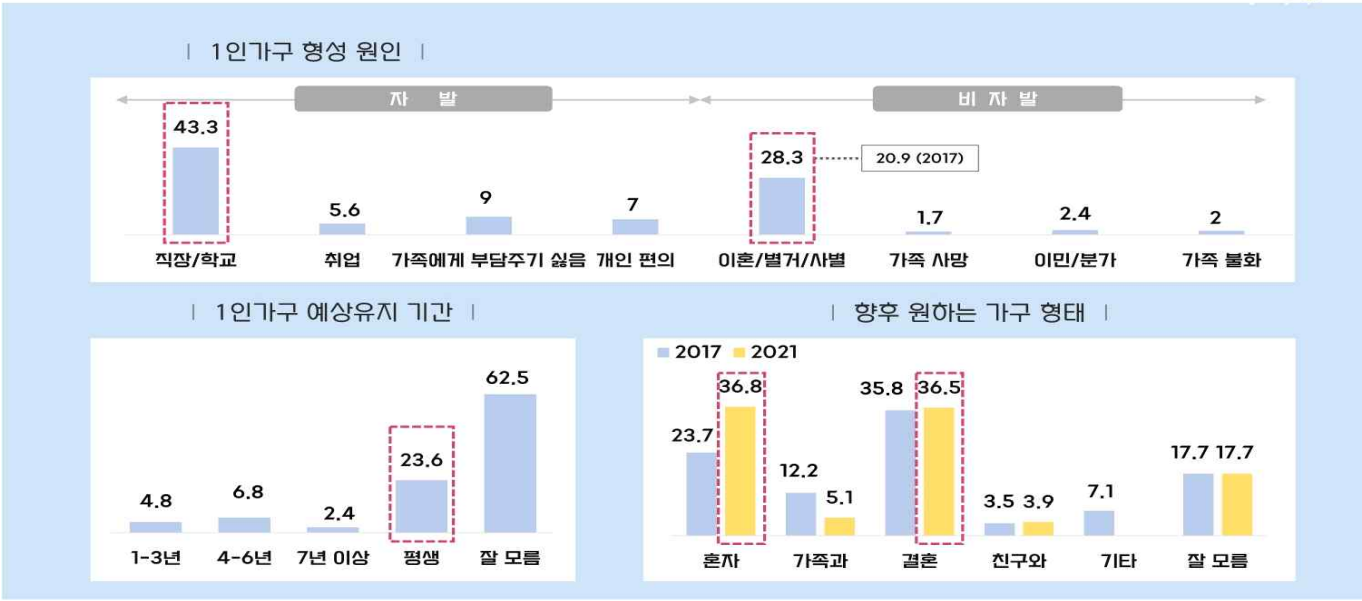
전체		청년(20~39)		중장년(40~64)		노년(65~)	
가구수 순	비율 순	가구수 순	비율 순	가구수 순	비율 순	가구수순	비율순
관악구(136,255)	**관악구**(53.9%)	**관악구**(89,736)	**관악구**(65,9%)	**관악구**(30,746)	**중랑구**(40.9%)	**노원구**(19,299)	**노원구**(31.8%)
강서구(94,436)	**중 구**(43.7%)	**강서구**(47,198)	**마포구**(59.0%)	**강서구**(28,863)	**도봉구**(40.4%)	**강서구**(18,123)	**도봉구**(31.3%)
송파구(79,262)	**금천구**(43.6%)	**동작구**(39,760)	**동작구**(58.3%)	**송파구**(26,721)	**양천구**(38.7%)	**은평구**(15,393)	**강북구**(28.6%)
				중랑구(24,740)	**강북구**(38.5%)		

* '2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 일반조사

혼자 사는 '우리'

1인가구 형성 주요 원인은 직장/학교 때문이고, 향후 원하는 가구형태는 36.8%가 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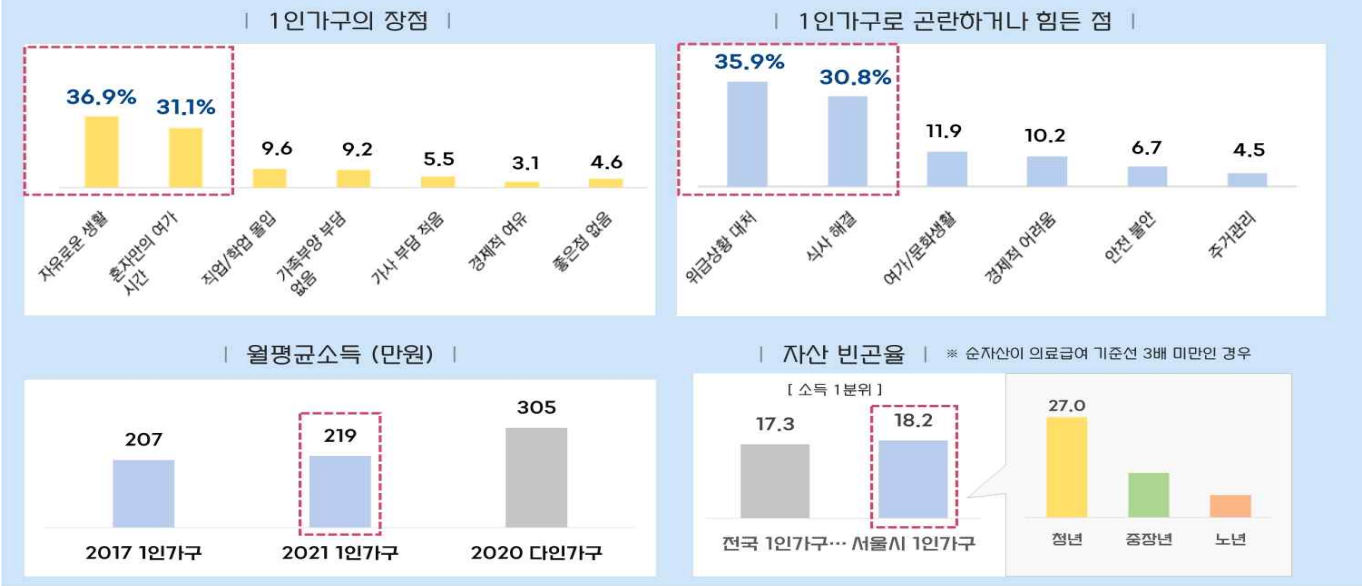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 일반조사

혼자 사는 '우리'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와 식사해결이 가장 어려움
다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고, 자산 빈곤율은 전국 수준보다 높음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생활실태 건강분야

1인가구 건강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1인가구 의료비 지출은 전체가구 평균의 1.4배, 만성질환 발생빈도는 1.6배

연간 의료비 지출 〈단위:천원〉

* 한국의료패널조사, 2017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관리에 취약 〈단위:%〉

* 한국식품영양학회, 2021

균형잡힌 영양 섭취 및 아플 때 대처에 대한 어려움 호소

균형잡힌 식사의 어려움	42.4%
하루 1회 이상 식사 결식	62.6%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0

응급·구급 발생 시의 대처 어려움	58%
의료·보건기관 혼자 방문	80.7%

* 한국1인가구보고서(KB금융지주연구소), 2020

1인가구 생활실태 안전분야

혼자라서 불안하다 / 침입과 노출의 두려움

1인가구 밀집지역(1인가구 비율 40%이상 지역) 범죄발생률 최대 4배
주거침입, 절도, 폭행에 대한 불안감 고조

최근 10년간 서울시 평균범죄 발생건수 〈단위: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2019 범죄피해 두려움 〈단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 요구 높음

CCTV설치 확대	스마트 가로등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가로등 확대	마을보안관
95.8%	92.6%	91.5%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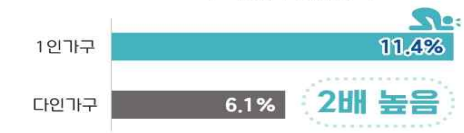
* 서울시 1인가구 여론조사, 2021

1인가구 생활실태 고립분야

고독과 고립, 빈곤이 고착화되다 / 숨겨진 이웃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우울감 경험률 2배, 외로움에 취약

우울감 경험률



불만족스러운 가족·사회적 관계, 신용불량 등으로 사회적 박탈을 경험하며 우울감 상승

✓ 외로움의 만성화는 사회적 고립, 우울,자살 및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년 고독사 발생 중 중·장년층 62.7%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2021

1인가구,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확대

1인가구 고용형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1인 가구 10명 중 8명(77%)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1인 가구 상대적 빈곤율 51.8% 다인가구(13.7%)의 4배 수준

※ 상대적 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인가구 생활실태 주거분야

취약한 주거 상황에 처하다

1인가구는 전·월세 비중이 높고, 초소형 주택 거주 등 주거환경 열악

열악한 주거환경

- 전·월세비율 80.4%
- 20㎡ 이하의 초소형 주택 30.4%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20

임차가구가 느끼는 주거 관련 어려움

- 주거관리비 부담 41.6%
- 임차료 인상 요구 20.6%
- 주거지 탐색의 어려움 13.2%

* 서울시 1인가구 여론조사, 2021

1인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비율이 낮고, 월세 비중이 높음

주거 점유 형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추진계획('22~'26)

비전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

1인가구 안심특별시, 서울

목표

"1인가구 분야별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정책기반 마련"

4대 안심정책

건강안심	범죄안심	고립안심	주거안심
건강 돌봄 안심먹거리	마을안심 내집 안전	고독·고립탈출 사회관계자립	맞춤주택공급 주거불편해소

맞춤	융합	공감
연령별·성별·지역별 맞춤형 정책	서울시·구+민간분야 강점 활용 정책	1인가구 관점 공감 정책

8개 핵심과제

건강안심

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1인가구 건강관리 프로그램

2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1인가구 행복한 밥상
- 1인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

범죄안심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안심마을보안관
- 스마트보안등 및 고화질 CCTV

4 범죄안심 홈세트로 1인가구 내집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1인가구 안심홈세트
- 안전도어 지킴이

4대 안심정책

고립안심

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우리동네 돌봄단
- AI활용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생명이음 청진기

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및 소통공간
- 경제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주거안심

7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가구 맞춤주택을 늘리겠습니다
- 세대통합형 모델 개발·공급
-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8 내집찾기, 내집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건강안심 | 과제 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통한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 지원

건강안심 | 과제 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긴급

아플 때 보호자처럼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대상 1인가구 또는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내용
-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지원서비스 (출발/귀가 시 동행, 접수·수납 지원, 진료동행 등)
- ✓ Door to Door, 당일연계 서비스

진료, 투석, MRI등 검사, 재활, 입퇴원, 항암, 건강검진 등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
중위소득 85% 이하 무료
※'22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운영시간
07~20시(월~금)
당일연계는 주중만 시행,
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콜센터 ☎ 1533-1179
서울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휠체어 없이는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JM,
휠체어 바람이 빠진지 6개월이 지나 난감한 상황!!
동행매니저가 장애인자립센터까지 동행해 정비를
도와줬고 덕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편안히 마침

엉치뼈를 다친 LM,
동행매니저가 계단에서 부축해주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도록 배려해주는 세심한 도움 덕분에 병원에 잘 다녀옴

이석증으로 혼지 걷기 어려운 40대 KM,
갑작스럽게 걸린 이석증으로 근거리 이동도
쉽지 않았는데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든든함

건강안심 | 과제 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아픈 시민 곁에서 단기돌봄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안심동행서비스

대상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1인 생활 시민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이용자 누구나)

내용
- ✓ 신체활동 도움(씻기, 옷갈아입기, 복약 등)
- ✓ 일상생활 지원(청소, 정돈, 세탁, 식사)
- ✓ 개인활동 지원(외출동행, 물품구매 등)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
중위소득 85% 이하 무료
※'22년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운영시간
08~20시(월~금)
주말은 예외적으로 협의 후 이용 가능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건강안심 | 과제 1

건강걱정 없는 맞춤 건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일상 돌봄

일상생활 속 1인가구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 온서울건강온 (만 19세 ~ 만 64세)
방문건강관리 (만 65세 이상)

온서울 건강온

- **건강위험관리** | 2주간 활동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우 헬스케어 매니저 개별확인
- **건강 맞춤정보** | 주거환경 고려한 운동영상, 건강요리 레시피 제공 등
- **건강관리 독려 이벤트** | 6개월 이상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1인가구 전용 소통방 운영** | 1인가구간 건강정보, 건강활동 교류의 장 마련

건강취약 1인가구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

- **건강취약 발굴** | 독거 어르신 및 건강 취약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찾동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
- **건강취약 관리** | 건강위험 요인 스크리닝, 유형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건강기기 등 AI·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지원 병행

건강안심 | 과제 2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1인가구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건강안심 | 과제 2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 운영

✓ 함께 요리하며 친구도 만들고,
신선 식재료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

소셜다이닝

✓ 대상별, 요리 주제별 맞춤 요리교실 진행

✓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시범 운영(10개소)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 식습관 형성

✓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재료, 과일 등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집밥생활 지원

✓ 불규칙한 식사, 신선채소 섭취 부족 등 1인가구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요리교실
- 간단 건강요리
- 제철 재료요리
- 만성질환별 식단

소통프로그램
- 음식공유회
- 요리책자제작
- 소소한 1주 1과제 실천

행복한 밥상 참여자 1000명 돌파!

"얼마 전 위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행복한 밥상에서 배운 요리로 건강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50대 1인가구 Y씨 (마포구)

"동네 지인 만들기가 참 여러운데, 행복한 밥상이 이웃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었어요!"

50대 1인가구 J씨 (강서구)

건강안심 | 과제 2

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혼자여도 건강한 밥상 1인가구 착한 먹거리 제공

✓ 착한 먹거리 :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문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먹거리 실천

모두의식사

모두의 식탁
식품 꾸러미를 활용한 요리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모두의 재료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해 계작된 식품꾸러미를 받아가는 프로그램

1인가구 착한 먹거리 지원 사업

✓ 꾸러미구성: 가공식품(민간기부) + 제철식품(시장 상인회)

✓ 기업·지역상권과 연계, 식재료 기부 지원채널 구축

✓ 제철 식재료(꾸러미) 활용 1인 가구 레시피 온·오프라인 요리교실 및 식생활정보 제공

지원대상 '22년 청년에서 '26년 청,중,장년으로 확대

범죄안심 | 과제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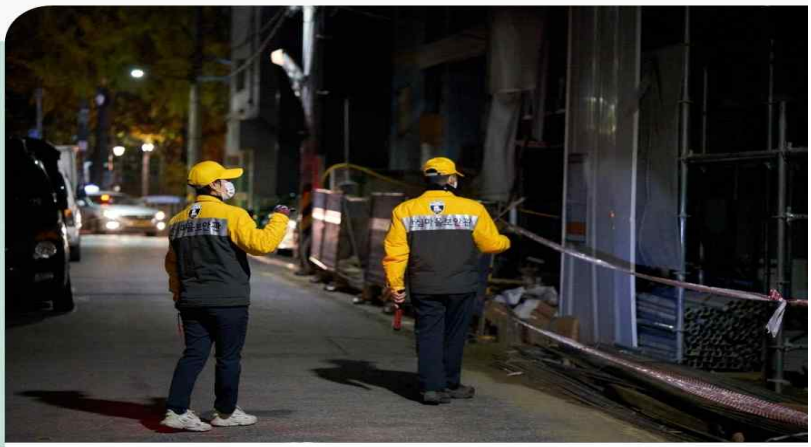
방범시설, 환경개선 및 순찰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범죄안심 | 과제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우리 마을 지킴이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 대상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내 주거취약구역
- 순찰시간: 21시~익일 02시 30분(1일 5시간) 구역별 4명씩 순찰
- 활동내용: 도보순찰을 통한 생활안전 지원 등



주요활동

환경안전 (시설/위험물 조치, 화재예방 등)

시민안전 (노약자보호, 주취자보고, 사고조치, 동행귀가, 분실물 조치 등)

눈 부위에 출혈로 도로변에 쓰러진 40대 남성!!
지혈조치하면서 119신고하여 안전한하게 병원 이송

(강서구 안심마을보안관)

다가구 주택 지하 보일러실 가스화재!!
119에 신고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사고 예방

(강남구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마을보안관

쓰레기 더미 속 부탄가스통이 터져 큰 불이 날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큰 피해 예방

(마포구 안심마을 보안관)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하는 치매노인!!
집까지 귀가동행

택시의 오토바이 사고 뺑소니 목격!!
112에 차량번호 및 상황 인계

범죄안심 | 과제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길 나를 지켜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활동내용 여성, 청소년 등 안전귀가지원, 우범지역 순찰 및 계도
(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 10~15분거리 주변 순찰 및 동행)

활동시간 월 (22시~24시)
화~금(22시~익일01시)

서비스신청 (안심이앱, 120) → 접수/연결 (장소,시간확인) → 신청인만남 → 귀가동행 (2인 1조)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 2명이
10대 여성 성추행하려던
60대 남자를 신고하여
2분만에 현장 검거
(금천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대학가 근처라고 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막연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져
안심귀가 서비스를 애용하고 있음
(동대문구 거주 21세 여성 김모씨)

범죄안심 | 과제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노후보안등 스마트보안등 교체 설치

- ✓ 무선통신(BLE)이 제공되는 IoT비콘점멸기, 연동 가능한 보안등 설치
- ✓ 경찰·자치구 CCTV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

스마트 보안등
안심이앱 실행 중일 때
가로등 접근시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짐

긴급상황 전달
안심이앱 연동하여 긴급신고시
가로등 점멸 및 경찰·관제센터에 긴급상황 전달

범죄안심 | 과제 3

늦은 밤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운영

- ✓ 전자발찌 영상, 위치 연계 (21.9~)
- ✓ 스마트보안등 안심이앱 연계(21.10~)
- ✓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 신청
- ✓ 안심귀가모니터링
- ✓ 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 위치제공
- ✓ 불법촬영점검 및 탐지장비 임대 신청
- ✓ 안심귀가택시 연계(예정)

범죄안심 | 과제 4

범죄안심 홈세트로 내 집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 강화 및 심리적 부담감 해소

범죄안심 | 과제 4

범죄안심 홈세트로 내집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집안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대상 1인가구(점포), 법정 한부모 가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스토킹 피해자 등

내용 주거침임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방범장비 설치·지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1인 점포

✓ 안심이 관제시스템과 연계 안심점포 무선비상벨 설치·지원

무선비상벨

긴급출동 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지원

✓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디지털 도어록

범죄안심 | 과제 4

범죄안심 홈세트로 내집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집앞

내집앞 CCTV,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

대상 서울시 만18세 이상 1인가구

내용
- ✓ 최초 1년간 자부담 월 1,000원 (월 8,900원 이용료 보조)
- ✓ 추후 2년간 자부담 월 9,900원 (1년이상 사용시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 서울시-민간 협약으로 시중가 월 18,750원을 3년간 저렴하게 지원

도어카메라 설치
- ✓ IoT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CCTV 현관 앞 설치
- ✓ 스마트폰을 통해 상시 확인 가능

제공 서비스

배회자 감지 및 알림

24시간 출동 서비스

SOS 비상 버튼 긴급출동 요청

고립안심 | 과제 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외로움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고립·고독 상황에 처한 1인가구의 우울감 해소 및 사회관계 증진 도모

고립안심 | 과제 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발굴

고독사 예방 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 ✓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대상으로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 확인 등
- ✓ 돌봄단 활동비 지원(1인당 월22만원)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집중관리

우리동네돌봄단 구성인원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년 전체 고독사의 62.7%에 달하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집중관리

취약계층 정기적 모니터링 및 위기가정 발굴

공적서비스(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민간연계(공동모금회, 기업 등)
기타활동(실태조사, 후원물품 전달, 마스크 배수 자살예방활동)

| 돌봄가정 후원물품 전달 |

| 대상자 가정 정기방문 상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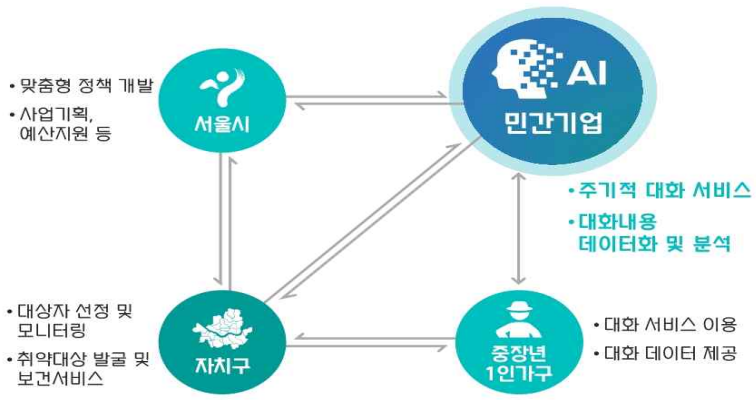
고립안심 | 과제 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방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시행

- ✓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말벗 기능 및 안부전화, 생활정보 등 제공
-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생활습관 관리



고립안심 | 과제 5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리

우울증 고위험군 심리관리 생명이음 청진기 확대 운영

- 접근성 높은 우리동네 의사를 통해 1인가구 우울·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심층상담 및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사업내용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우울 검사를 통해 나의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1차 의료기관의 발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신청방법

각 자치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고립안심 | 과제 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계, 직업·금융 교육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경제자립 지원 및 사회관계망 형성

고립안심 | 과제 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계형성 프로그램 및 소통공간 지원

- ✓ 연령·생애주기별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1인가구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공간 제공

관악구, 송파구, 동작구, 중구

고립안심 | 과제 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 ✓ 상담·심리 전공자 등의 멘토와 사회관계 형성·개선 희망 1인가구 멘티 간 매칭
- ✓ 심리적 지지와 유대감으로 결속하는 심층 멘토링

개별 심리상담 및 코칭 멘토 (1:1)

심리상담 · 심리도구를 활용한 활동 지원
· 성격분석, 미술치료, 조향, 컬러 테라피 등

진로 코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대비 등

그룹활동 멘토 (1:多)

- 책, 영화 등 매체를 활용한 인문학 소양 증진
- 반려식물 키우기, 산책, 운동 등 취미활동 공유
-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나눔 활동 등

고립안심 | 과제 6

경제자립과 사회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인가구 경제자립을 위한 교육 및 공공일자리 연계 지원

경제자립 교육

재무교육 (국민연금관리공단 협력)
- 불합리한 소비습관 교정, 자산운용, 연금 및 보험관리 등 교육

부채교육 (금융복지상담센터)
- 장기채무, 신용회복 관련 교육, 법률기관 연계 구제 절차 지원

1인가구 맞춤형 공공일자리 연계

안심일자리 (36명, 33개 기관)
- 씽글벙글 복지사 : 초기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 보조

보람일자리 (31명, 23개 기관)
- 상담헬퍼 : 50·60 동년배 중년 상담 및 재가 방문 지원 등

주거안심 | 과제 7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가구 맞춤주택을 늘리겠습니다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주거모델 개발 및 맞춤 주택 7만호 공급

주거안심 | 과제 7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가구 맞춤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

- ✓ 1인가구와 다인가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세대 융합 주거모델 개발
- ✓ 입주자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 ✓ 저이용 공공유휴부지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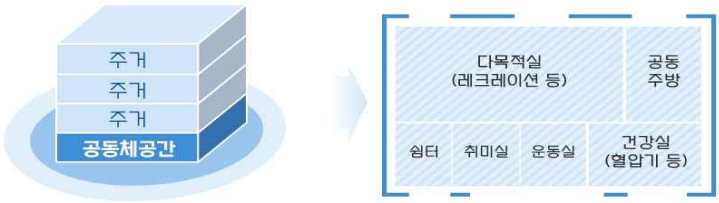
연구용역

'22년

세대통합형 주택모델

독립 주거공간 + 공공 생활 SOC 시설 + 공동체 프로그램

| 소규모 주거모형 |



주거안심 | 과제 7

임대료 부담 없이 오래오래~, 1인가구 맞춤주택을 늘리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 ✓ 역세권 규제완화와 체계적 개발로 만19~3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 공급
- ✓ 양호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전성 도모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내 면적 1천㎡ 이상 부지

청년매입 공공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역세권 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등 공동주택)

주택공급 계획

(단위: 호)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역세권 청년주택	2,000	5,000	19,000	16,000	15,000
청년매입 공공주택 (매입형, SH선매입, 모아주택)	3,100	2,000	2,200	2,200	2,200
총 계	5,100	7,000	21,000	18,200	17,200

주거안심 | 과제 8

'내 집 찾기, 내 집 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집보기 동행, 부동산 계약부터 주택관리까지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주거안심 | 과제 8

'내 집 찾기, 내 집 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꼼꼼한 내 집 찾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상담하고
- ✓ 집보기 동향으로 주거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 ✓ 나에게 필요한 주거정책 정보까지 지원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 계약 체결 시 동행도 지원

-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확인·점검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점검 ◎ 건축물 대장 확인 등

- 생애 최초계약자,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 1인가구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 주변 환경 안내 ◎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 탐색 시간 경감

주거정책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심화상담은 주거 전문기관 연계

-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같이 확인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
운영일시	매주 월, 목 13:00 ~ 17:30 (주2회) * 운영 시간 외 서비스 요청의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
신청방법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별 전화 * 14개 자치구 시행 중
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혼자 가서 절대 보지 못 했을 법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봐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30대 여성)

전월세 계약이 처음이거나
서울에서 처음 방 구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덕분에 안 불안하네요
(30대 남성)

집을 혼자 처음 구해봐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매니저님께서 부모님처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부동산에 관해 매우 전문적인 분이셔서 든든했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20대 여성)

주거안심 | 과제 8

'내 집 찾기, 내 집 관리 어려움' 서울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관리 걱정 없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 주택관리 코디네이터가 세대방문·상담 및 1인가구 맞춤형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 ✓ 서울시 거주 임차 1인가구당 50만원 범위내 지원
  - * 중위소득 120% 미만 : 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지원
  - * 중위소득 120% 이상 : 소요비용 50% 본인부담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형광등, 수도꼭지,콘센트, 전기 스위치 교체,
커튼·블라인드 설치, 전선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홈케어 서비스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가
동네의 수리업체와 함께 집을 수리해드립니다

클린케어 서비스

주거복지센터의 집수리 전문가와
수납전문가가 수납과 정리정돈을 도와드립니다

추진체계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1인가구 정책 추진
씽글벙글 서울
전문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안전,주거,건강,외로움,일자리 등)
시민
1인가구 정책 모니터링단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
참여 · 홍보
1인가구 공감토크쇼
서울특별시
2022
1인가구 공감토크쇼
주 제 |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
일 시 | 2022.10.19 (수) 18:30 ~ 20:15
장 소 | 시민청 바스락홀
신청방법 | 사전접수 / Youtube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 참여 가능
진 행 | 이지인 아나운서
행사내용 | K-pop공연, 토크쇼, 밸런스게임, 경품행사 등
사회
주제발표
패 널
주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s://1in.seoul.go.kr

1인가구 정책을 한눈에!!
서울 1인가구 포털
1in.seoul.go.kr
서울 1인가구 SNS "씽글벙글 서울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씽글이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 사 합 니 다

부 록

Ⅰ. 2022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 주요사업

세부 프로그램명		내 용
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개인상담** - 서울생활권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1인가구로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 **집단상담** - 직장 내 대인관계・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생활권 사회초년생 1인가구 5명(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사회초년생 1인가구 대상 직장 내 의사소통기술 향상 집단상담
교육 및 여가문화	공통	○ **1인가구 재무교육** - 서울생활권 청년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국민연금공단 전문강사 연계 - 4대보험, 절세형 금융상품, 신용・대출 등에 관한 집단교육 ○ **1인가구 관계증진(요리 매개)** - 서울생활권 20~40대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요리를 매개로 한 소통 교육, 한상차림 등
	자치구 맞춤형	○ **신체활력 증진** - 서울생활권 중장년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강북구보건소 연계・협업하여 북한산 둘레길 걷기 체험 및 맞춤형 건강교육 ○ **여가・문화 지원** - 서울생활권 청년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삼양청년회관 연계・협업하여 아이패드 드로잉, 플라워 클래스, 목공 등 1인가구의 일상 스트레스 감소와 관계망 형성 도모 ○ **일상생활 역량강화** - 서울생활권 20~40대 1인가구(강북구 생활권 우선 지원) 대상 - 자원순환환장사회적협동조합 연계, 환경친화적 살림 교육・체험 실시 ○ **1인가구 포럼** - 1인가구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실무자, 공무원, 지역주민 등 대상 - 강북구 1인가구 실태 및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 진행
사회적 관계망 지원	1인가구 자조모임	○ **오리엔테이션** - 1인가구 자조모임 참여 그룹 대상 대면식 및 자조모임 운영 방법 등 안내 ○ **자조모임 지원** - 4인 이상의 1인가구 정기모임 활동 지원 ○ **활동공유회** - 참여 그룹 사례 발표 등

Ⅱ. 강북구가족센터 주요사업

2022년 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포럼

발행일 : 2022년 11월

발행인 : 한 은 주

편집인 : 김 민 주

발행처 : 강북구가족센터(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29길 6)

전 화 : 02-987-2567

팩 스 : 070-7469-2568

홈페이지 : https://gangbuk.familynet.or.kr

※ 이 자료의 저작권은 강북구가족센터(강북구1인가구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